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6호

(2025/여름)

제1저자, jyhan@cku.ac.kr

교신저자, runnerchoi@catholic.ac.kr

뉴먼의 『대학의 이념』과 가톨릭 대학 교육의 방향 탐색

현대 교육적 함의

한진영(가톨릭대학교 · 가톨릭교육전공 · 박사과정)

최준규(가톨릭대학교 · 가톨릭교육전공 · 교수)

I. 서론

■ 현대 사회의 세속화와 탈 종교화, 그리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대학 교육은 본래의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교육의 본질과 근본적 목적을 고민하기보다,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하며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빌 레딩스는 『폐허의 대학: 새로운 대학의 탄생은 가능한가』(The University in Ruins)에서 현대 대학이 시장 논리에 종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 행정은 이를 ‘수월성의 추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학생들은 더 이상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소비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재정립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날 대학 교육의 현실은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의 본질과 목적** 보다는, 대학평가 지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입학 경쟁률, 취업률과 같은 외형적 성과가 대학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

* B. Readings, 윤지관 · 김영희 역, 『폐허의 대학: 새로운 대학의 탄생은 가능한가』, 서울: (주)도서출판 책과 함께(2015), 26~27쪽.

** 본 연구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념, 교육 목적, 교육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전인교육과 복음화라는 사명을 지닌 가톨릭계 대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대학이 본래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유지하는데 점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환경 속에서 가톨릭계 대학이 지닌 교육적 본질과 목적을 논할 때,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은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의 교육사상은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그가 남긴 교육학적·신학적 유산은 여전히 현대 가톨릭 대학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며 오늘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은 19세기 영국에서 옥스퍼드 운동(The Oxford Movement)**을 이끌며 영국 성공회의 쇄신과 가톨릭 전통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아일랜드 최초의 가톨릭 대학 설립을 주도하였다. 또한, 대학의 본질, 지식의 성격, 교육과정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대학 교육의 방향 정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뉴먼은 『대학의 이념』에서 대학의 목표가 보편 지식(universal

* 존 헨리 뉴먼은 1801년 2월 21일 런던에서 태어나 1824년 영국 성공회 사제가 되었으며, 1845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1851년 대주교 컬렌(Cullen)의 청탁으로 더블린 가톨릭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으며, 1873년 『대학의 이념』을 출간했고, 1879년 교황 레오 13세에게서 로마 가톨릭 추기경 서품을 받았으며, 1890년 8월 11일 버밍엄에서 사망했다(A. Dulles, 『존 헨리 뉴먼의 생애와 사상』, 윤성희 옮김, 2010, 서울: 성바오로).

** 영국 성공회의 쇄신운동으로서 성사, 전례, 관상 등 가톨릭 전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1833~1845년 사이에 일어난 운동(김성태, “옥스퍼드 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9(2002), 6483쪽)

knowledge)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이는 ‘대문자’ 철학(Philosophy)과 깊이 연관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대문자 철학을 진리의 총체이자 보편지식과 동일시하며, 대학 교육의 핵심은 이러한 보편지식을 갖춘 참된 지성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요구이기에, 올바른 대학 교육은 학생들이 보편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인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삶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은 뉴먼이 살던 19세기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학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와 목적은 12세기 대학 제도가 탄생한 이래로 지속 되어 온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근본적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뉴먼이 강조한 ‘지성인 양성’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는다. 그는 올바른 대학 개혁의 출발점이 대학의 본질과 이념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현대 가톨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가톨릭 대학은 사회적 요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가톨릭 교육이념과 학문적 우수성을 조화롭게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뉴먼의 『대학의 이념』을 현대 교육환경에 맞게 재

* 최준규,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방안 연구」, 『종교교육학 연구』, 51(2016), 224~225쪽.

** 같은 글, 217쪽.

해석하고, 현대 대학의 변화와 가톨릭 대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과 목적을 탐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 가톨릭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검토하여 현대 가톨릭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서 제시된 대학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의 교육사상은 무엇인가?
- 현대 대학 교육의 변화는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며,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교육사상은 현대 가톨릭 대학 교육에서 어떻게 재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 현대 교육관점에서 뉴먼의 『대학의 이념』을 토대로 가톨릭 대학은 어떻게 대학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구현하며 대학으로서의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뉴먼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가톨릭 대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뉴먼의 대학 교육 개념

1. 대학 교육의 목적

- 대학 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시대를 초월해 지속되어

은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뉴먼이 1852년 대주교 컬렌(Cullen)의 요청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톨릭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대학의 이념』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성찰하는 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뉴먼은 대학의 목적이 통합적 지성의 개발과 ‘지성인의 배양’(the cultivation of the intellect)에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대학 교육이 단순히 한 학문 분야의 전문지식을 심화하기보다는, 정신의 진정한 확장을 통해 많은 것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 상호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의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대학 교육의 주된 결실이 특정 직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이 한층 성숙해지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뉴먼은 대학이 교회의 도움 없이는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며, 교회는 대학 교육의 완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학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학문 습득이나 지식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온

* P. Tonks, 'The Liberal Arts and the Christian Mission: John Henry Newman's Idea of a University and its Legacy', 『대학과 선교』, 32(2016), p.22.

** M. Alasdair, The Very Idea of a University: Aristotle, Newman, and U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7(4)(2009), p.353.

*** T. Hoopes, 'Why Cardinal John Henry Newman Thinks You Should Give College a Try', Benedictine College, Kansas, *Media & Culture*, 2024년 3월 5일, <https://media.benedictine.edu/why-cardinal-john-henry-newman-thinks-you-should-give-college-a-try>(검색일: 2024년 11월 5일)

**** J. H. Newman & F. Schleiermacher, 『대학의 이념』, 이진우 역주, 계명대학교출판부, 2000, 9쪽.

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는 대학의 토대를 견고히 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안녕, 종교적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한 교육을 지원하는 필수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었다.* 즉 교회는 가톨릭계 대학이 지적 우수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진리와 지성, 신앙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요약하자면, 뉴먼은 대학 교육의 목적이 보편지식을 지닌 ‘지성인 양성’이므로 대학은 실용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지식 그 자체’의 추구, 전문화된 지적 훈련이 아닌 폭넓은 교양의 습득, 가톨릭적 전인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뉴먼은 19세기 당시 사회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면서 교양을 갖춘 지성인과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다고도 볼 수 있다.

2. 지식의 통합과 신학교육

대학은 교육의 장소로서 보편적 학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각자 자신의 학문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학자들이 친밀한 교류와 지적 평화,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들과 관계를 조정하기

* 같은 책, 13쪽.

** 같은 책, 15쪽.

*** M, Marchetto., Religious Education and John Henry Newman's Idea of a University, *Itali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7(3)(2015), p.194.

위해 대학이라는 장소에 모인 것이다.* 뉴먼은 학문이란 정보의 묶음이 아니라 고유한 형식을 형성하여 인간의 정신에 각인되어야 하고, ‘하나의 지적 안목’, 또는 ‘보는 습관(habit of viewing)’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먼은 총체적인 인문교육과 신학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식인의 양성을 강조하였으며, 만약 대학이 총체적 지식 혹은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신학의 배제는 지식 영역에 있어서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을 누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교육에 있어서 신학의 역할은 총체적 지식 형성의 일부이자 조건이며, 다른 학문 분야와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한다. 즉 모든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식의 모든 분야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신학은 지식의 통합과 융합을 이루어 낸다.****

즉 종교적 진리는 일반 지식의 조건으로 대학에서 규범적 권리를 보장하며, 신적 지식의 누락은 무지로 이어지고 신학의 부재는 학문의 왜곡을 초래한다.***** 이처럼 뉴먼은 신학을 모든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학문 중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핵심 학문이며, 신학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지정민·손종현(2011)은 뉴먼의 일차적인 목적은

* J. H. Newman & F. Schleiermacher, 앞의 문헌, 7~28쪽.

** 최준규, 같은 글, 226~227쪽.

*** J. H.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Yale University, 1996, pp.18~19.

**** *ibid.*, p.75.

***** *ibid.*, p.20.

대학 안에서 학문으로서 신학의 위치를 확립하며, 신학은 종교의 과학이라고도 불릴 만큼 과학과 더불어 하나의 울타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은 천상의 진리를 다루고 있으며, 신의 섭리, 신과 인간, 종교적 질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뉴먼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뉴먼의 ‘지식의 통합’과 ‘신학교육’은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조각조각의 파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하느님 모상 (Imago Dei)으로서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종교적 차원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학 교육에서 뉴먼이 주장한 교육사상의 핵심은 신학이 보편 지식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보편지식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며, 학문에 대한 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정체성과 교육과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3.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상

뉴먼은 지식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대학의 교육을 자유교육이라 명명했으며, 그가 주장한 자유교육의 목적은 모든 분야의 진리, 과학과 과학의 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각각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 지식 습득을 통한 지적 능력 함양, 그리고 모든 지식은 상호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며 지식 간의 관계와 상호 영향력을 이

* 지정민 · 손충현,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의 재해석」, 『도덕교육연구』, 23(2)(2011), 146쪽.

해할 수 있는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자유교육의 특징은 철학, 문학, 예술, 과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대학 설립에 있어 가톨릭 공동체(to the Catholic community)에게 효과성과 실용성, 그리고 유인(inducements)을 제시하고 있다.**

뉴먼은 대학에서의 자유교육은 정신의 습관이 형성되어 일생동안 지속하게 하는 철학적 습관이며, 이러한 습관이 기여하는 것은 자유, 공평, 평온, 중용,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것이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특별한 결실이며, 이것이 바로 대학이 학생을 대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세 이후 대학은 자유교육의 이념에 따라 지식을 추구하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대학의 교육은 자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발달과 이성의 도야를 통해 무지와 편견에서부터 탈피하여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지식을 다루고 있다.**** 한국 대학에서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교양 교육’이라는 말로 대변되어왔으며, 학계에서는 ‘자유 학예’(liberal arts),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등 여러 표현이 혼용되어왔다.*****

한편 뉴먼은 대학을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기관으로 여겼는데, 뉴먼이 살던 19세기는 학문적 중등학교 출신자들이 대학에 입학했고, 주로 대학 교육은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상승

* J. H. Newman, *ibid.* pp.78~79.

** *ibid.*, p.78.

*** *ibid.*, p.77.

**** 정철민, 「대학의 이념으로서 자유교육의 성격: 오우크쇼트의 언어(language)와 문헌(literature)의 구분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5(2)(2013), 75~76쪽.

***** 백승수, 「교양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의 재개념화」, 『교양교육연구』, 13(1)(2019), 141쪽.

의 통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뉴먼은 보편적 교육의 이상, 즉 엘리트주의의 반대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을 소수의 천재를 위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보았고, 자유교육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뉴먼의 자유교육은 ‘유용한(useful)’, ‘좋은(good)’, 그리고 ‘자유주의적(liberal)’ 교육이며, 학문이 정신적 교양을 지향하는 교육이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 교육의 목적을 사회 전반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증진 시킨다고 믿었다.***

따라서 뉴먼의 자유교육은 특정 직업이나 경력과 무관한, 이는 전문 직업교육과 구별되는, 모든 학생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즉 뉴먼의 자유교육은 학생들이 폭넓은 지적 안목과 지성을 함양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실용주의적 측면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R. Anderson, "The 'Idea of a University' today", *History & Policy*, 2010,03,01.<https://www.historyandpolicy.org/policy-papers/papers/the-idea-of-a-university-today>

** J. H. Newman, *ibid.*, p.116.

*** T. Hoopes, *ibid.*

III. 가톨릭 고등교육의 발전

1. 현대 가톨릭 대학의 환경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개방적 사회 기관으로 변모하여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대학은 더이상 소수 엘리트 를 위한 기관이 아닌 대중화된 교육기관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대학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영향력 증대, AI 윤리 문제, 하이브리드(hybrid) 및 온라인 학습환경 등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지식 영역이 등장하고 과학의 발달에 따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지식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대학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 운영의 위기에 봉착하는 지방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등교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는 등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톨릭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요구에 맞춘 전문화된 교육 제공, 산학협력 강화, 사회문제 해결, 국제 교류 및 협력 등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과 지속적 교

* 권정현 · 김해숙,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자율전공학부 대학생활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30(4)(2024), 303쪽.

** S. Sawasdikosol, "Driving Universities' Collaboration Toward the New Era of Sustainable Social Responsibility".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Conference, Penang, Malaysia,

육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컬(glocal)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 중심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등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톨릭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가톨릭 교육자들이 그들의 기관이 가톨릭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대학으로 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이상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후들은 인류와 교회에 급진적인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화, 세속화의 만연,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 증대, 가톨릭의 지리적 중심 이동, 과학기술 혁명,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위기 등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들로 가톨릭 대학에 작용할 수 있다.**

가톨릭 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다음 세 가지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톨릭 지적 전통을 보전하고 전달하며 발전시켜야 할 책임, 둘째, 전인교육의 이상을 완전히 구현해야 할 책임, 셋째, 현시대와 세계 모든 곳에서 하느님 나라와 교회에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정의를 위한 가난한 이들의 필요와 열망에 비추어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처럼 가톨릭 대학은 이천년의 무구한 가톨릭 공동체의 지

2009, pp.1~17.

* K. Mohrman, W. Ma & D. Baker, The Research University in Transition: The Emerging Global Model, *Higher Education Policy*, 21(1)(2008), pp.5~27.

** A. J. Cernera, The Catholic Character of Catholic Universities, *Mission Integration & Ministry Publications*, 9(2009), p.440. https://digitalcommons.sacredheart.edu/mission_pub/9/검색일: 2025년 1월 24일)

*** 앞의 글, p.441.

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배움의 장소로서, 대학 교육에 있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적, 영적, 인간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동시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 예를 들어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서 정의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특별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역할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가톨릭 대학들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가톨릭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의미의 대학으로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며, 대학 교육에 있어서 가톨릭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가톨릭 대학으로서의 존립의미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 대학 교육의 특징 및 역할

전통적으로 대학은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상아탑(象牙塔)이라고 불리었다. 대학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진리와 학문만을 추구하는 곳이며, 상아의 순백색은 순결을 상징하며, 이는 대학의 순수한 학문적 추구하고 고고한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은 취업 중심의 교육과 시장 논리의 도입으

* 송종복, 상아탑, 경남매일, 2014년 10월 29일자.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671>(2025년 6월 8일 검색)

로 전통적인 상아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대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융합적 사고와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대학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현대 대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간의 생애 변화에 따라 성인학습자를 양성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대학의 사회적 책임 확대이다.*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로스 재단과 같은 조직은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커리큘럼 개발, 교수훈련, 도서관 자원 개선과 같은 지원을 대학과 연결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기도 한다.** 다섯째, 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대학과의 교류확대, 영어강의 증설, 글로벌 캠퍼스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 J. Brennan, R. King, & Y. Lebeau,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Transformation of Societies,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Synthesis Report*, 2004, pp.39~40. <https://oro.open.ac.uk/6555/>(검색일: 2024년 12월 5일)

** J. Brennan, R. King & Y. Lebeau, *ibid.*, pp.39~40.

있다. 여섯째, AI,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먼이 『대학의 이념』에서 주장했던 지성의 함양, 보편적 지식 추구,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추구 등 대학이 단순히 직업훈련소가 아닌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뉴먼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통용되나, 현대 사회에서의 대학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와 실용적 지식 생산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학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기관(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Nation) 중의 하나이며, 현대 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최고의 자원이자 지역공동체 문제를 협력과 공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전통적인 지식 전달과 진리의 탐구기관만이 아닌, 사회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야 하며, 구성원 모두 사회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대학이 인지하고 대학 교육의 방향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육을 구현하는 가톨릭 대학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전인교육을 수행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가톨릭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전달하

* S. Sawasdikosol, *ibid.*, pp.1~17.

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3. 가톨릭 대학 교육의 목적과 본질적 기능

가톨릭 대학은 가톨릭교회로부터 탄생하였으며, 가톨릭 대학의 목적과 본질적 기능은 교수와 학생의 학문 공동체, 진리추구와 전달, 인간과 사회에 봉사라는 일반적 본질 외에, 교회의 사명인 신앙적 조명과 교회 가르침에 따라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가톨릭 대학의 본질적 특성으로는 그리스도교적 영감, 신앙의 조명 안에서의 교육과 연구,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 존중, 인류의 초월적 유익을 위한 봉사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지식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이며, 가톨릭 사상이 생동적으로 현존하고 작용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도 지닌다. 이처럼 가톨릭 대학은 교육, 그리고 학문의 발전과 함께 가톨릭 정신의 실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톨릭 대학교를 위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에서 제시된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본질적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의 자발적, 비공식적 활동으로 이

* 원형준, 「대학 이념 기반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46(2024), 250쪽.

**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63쪽.

루어지던 사회봉사가 대학 주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사회공헌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가톨릭 대학의 사회봉사는 더 큰 의미에서의 가톨릭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 복음화, 공공선, 지역사회에의 기여, 이웃사랑이라는 그리스도 인간관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대학의 교회적 사명은 하느님 나라의 본질인 거룩함, 정의, 사랑 등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그 사회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내적 일치, 그리고 인류 간의 화합을 드러내는 성사이며, 이는 하느님과의 영적 일치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라는 공동체적 이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동선에 대해 회칙과 교서를 통해 공동선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생활의 총체적 조건으로 보았으며, 국제적 차원으로 공동선 개념을 확장하여 국가 간 연대를 이루어 공동선 실현을 촉구하고 공동선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은 교육공동체로서 진리탐구를 위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스도교적 영감과 교회의 전통

* 권현수,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5(2)(2022), 61~62쪽.

** 최준규 · 윤만근 · 구본만 · 김경이 · 김남희 · 김선필 · 이희경 · 전제아, 『가톨릭교육학개론』, 지식문화원, 2024, 54쪽.

*** 앞의 책, 55쪽.

적 가르침을 존중하며,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국제, 국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류공영을 위한 공동선을 행하고 현대 사회에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현대 교육관점에서 뉴먼의 『대학의 이념』 성찰과 가톨릭 대학 교육의 방향

1. 대학의 본질, 목적, 수월성*의 조화를 통한 가톨릭적 교육 가치 추구

1) 대학의 본질: 분절적 지식의 위기와 통합적 학문의 재구성

뉴먼의 『대학의 이념』이 함축하는 의미는 “대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며,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뉴먼은 대학의 본질을 ‘지식 전체의 통합적 전달’로 규정하며, 학문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며 인간의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뉴먼이 주장한 보편지식은 학문 간 경

* 가톨릭학교가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이란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가톨릭의 교육 철학 안에서 학생 각자가 지닌 재능과 소질을 존중하는 가운데 학문 분야 또는 특정 재능 분야에서 각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가톨릭학교는 이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 헌장 제4장 교육과정 8항).

** 뉴먼, 밀, 이진우, 박일우 역주, 『자유교육의 전개 영국편』, 서울: 리버럴아츠, 2023, 13쪽.

계를 허물고 신학을 정점으로 한 지식의 통합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대 대학은 실용주의와 전문직업교육에 치우쳐 인문학적 소양과 영적 성찰이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앤더슨(Anderson)*은 현재 대학의 본질에 대하여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벗어난 ‘상아탑’으로서의 실제 대학을 상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며, 수요와 경쟁이 대학을 새로운 패턴으로 재편할 것이고, 특히 과학 분야에서 연구의 우선순위와 명성은 국가 정부가 아닌 국제적인 학문커뮤니티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학들은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설학과를 집중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인문학적 교양과목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의 교양 교육 목표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며, 인격, 도덕, 리더십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톨릭 대학은 학문적 탐구와 영적 가치의 통합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현대 사회의 학문 분화는 전문성과 과학, AI의 도래로 인해 학문영역이 세분화 되었고, 이는 지식의 양적 축적과 특정 분야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심의 상실과 인간 실존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결핍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학 교육에 있어서 총체적 학문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 R. Anderson, “The ‘Idea of a University’ today”, *History & Policy*, 2010,03,01.<https://www.historyandpolicy.org/policy-papers/papers/the-idea-of-a-university-today>(검색일: 2024년 12월 5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연구」, 2019, 109쪽.

융합적 사고와 인간의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은 분절적 지식(fragmented knowledge) 체계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의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통합적 학문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가톨릭 대학은 학문 간 연계 교육, 인문학과 윤리교육의 강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전인적 학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양 교육의 재구성과 가치기반의 커리큘럼 설계를 통해 분절된 학문을 인간 삶의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무구한 역사를 지닌 가톨릭 대학은 학문의 자율성과 이성적 탐구를 존중함과 동시에, 신앙과 윤리, 공동선이라는 고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통합적 학문의 회복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구체적으로 가톨릭 대학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진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비전을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양 교육의 강화, 가치 중심의 커리큘럼 재구성, 학문 간 대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가톨릭 대학은 단지 학문 간 통섭을 넘어, 학문과 인간, 사회, 초월적 가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교육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이는 곧 가톨릭 대학이 단순한 직업교육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공공적 책임을 촉진하는 ‘공동체적 학문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John, Paul II., 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Ex corde ecclesiae], 최영철 역(1990),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전자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처럼, 가톨릭 대학은 인간의 총체적 성장을 지향하는 통합적 교육철학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가톨릭 대학이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2) 가톨릭 대학의 목적: 지식·인성·봉사의 삼중적 실현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따르면, 대학은 지적 탐구, 인성 개발,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며, 지식의 내재적 가치와 공동선 추구를 강조하였다. 가톨릭 대학은 이 삼중적 목적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인 가톨릭 대학의 목적은 지식탐구로서의 대학을 추구하는 것이며,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인간 이성의 자유로운 탐구를 바탕으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다. 뉴먼은 대학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학의 목적은 보편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대학은 사회적 유용성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학문 공동체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 고등교육은 점차 산업화된 지식체계와 결합되며, 지식의 목적을 외재적 성과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지식탐구로서의 대학의 본래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가톨릭 대학의 두 번째 목적은 전인교육의 실현, 즉 인성함

* 최준규(2016), 앞의 글, 229쪽.

양으로서의 대학으로 볼 수 있다. 뉴먼은 대학교육이 이성과 윤리의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단지 학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 인격 형성(moral formation)을 핵심 목표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대 교육학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가톨릭 교육 전통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 타인에 대한 책임, 영성적 성찰을 포함하는 인간중심교육(human-centered education)을 강조해 왔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인간 문화, 인본주의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 전문화된 직업 훈련과 결합시키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 교육은 비판적 사고력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 자아 성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톨릭 대학으로서의 세 번째 사명은 지식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실천에 있다. 뉴먼은 대학이 직접적으로 사회 개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대학 교육은 결국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선을 위한 간접적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은 이러한 전통 위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지식이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수단으로 확장될 때, 가톨릭 대학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복음화를 수행하는 참된 봉사와 복음화의 ‘장(場)’이

* Ex Corde Ecclesiae, 1990.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가톨릭 대학은 지식, 인성, 봉사의 삼중적 목적을 통합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이는 곧 지식탐구와 영성,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가 있는 오늘날 가톨릭 대학이 추구해야 할 사명일 것이다.

3) 수월성과 정체성의 조화: 가톨릭적 교육 가치의 구체화

현대 고등교육은 점점 더 경쟁 중심의 평가 체계 속에서 ‘수월성(excellence)’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연구실적, 글로벌 순위, 기술 혁신 등 계량화 가능한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의 질을 판단하게 한다.*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QS(Quacquarelli Symonds)** , THE(Times Higher Education)*** ,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 CWTS 라이덴 랭킹***** ,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 등 세

* I. Ordorika, & M. Lloyd, “Global university rankings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3(2015), pp.15~24.

** QS(Quacquarelli Symonds):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매년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 발표, 학계 평판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논문 피인용 수 등을 평가 지표로 활용, 전 학문 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며 학과별 순위도 제공(www.topuniversities.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THE(Times Higher Education):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이며, 매년 THE 세계대학순위 발표, 교육 여건, 연구실적, 논문 피인용도, 국제화, 산학협력 등 5개 영역 평가, 연구 중심 대학을 주요 대상으로 함(<http://www.timeshighereducation.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에서 발표, 노벨상/필즈상 수상 실적, 피인용 연구자 수, Nature/Science 논문 게재 실적 등을 평가, 객관적인 연구 성과지표에 중점을 둬(www.shanghairanking.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CWTS(네덜란드어: Centrum voor Wetenschap en Technologische Studies, 영어: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라이덴랭킹: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에서 발표, 4년간의 논문을 분석하여 학술분야에 치중한 평가 수행(www.leidenranking.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비영리 교육단체에서 발표,

계적으로 유명한 이들 평가기관은 각자 고유한 평가 방식과 지표를 사용하여 세계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실적, 교육 여건, 국제화 정도, 평판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수월성 담론은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고등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인간 중심의 교육,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주변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대학은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학문적 수월성과 가톨릭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월성 추구가 지나치게 세속적 기준에 의해 주도될 경우, 가톨릭 교육의 고유한 인문학적, 도덕적, 영성적 가치는 도외시되고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은 수월성과 정체성 간의 이원적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적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월성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인격적, 학문적 차원을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나 제도적 배경에 국한되지 않으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인간 존엄과 공동선, 사회정의와 진리추구라는 가치에 기초하여,* 가톨릭 교육 가치에 따라 재정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동시에 가치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질, 동문 고용 수준, 교수진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cwur.org)(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Ex Corde Ecclesiae, 1990.

2.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한 지적, 영적 진리추구

현대 고등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실용성과 직업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적 효용성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니지만, 교육의 본질이자 고등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진리탐구의 균형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학에서 지적 성장만을 강조하고, 영적·윤리적 성찰을 경시하는 경향은 인간 이해의 단편화와 가치 판단의 공허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먼의 『대학의 이념』은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지적 탐구와 영적 성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뉴먼은 교육과정의 연결(connections)과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하였는데, 즉 모든 지식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며, 모든 학문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향한 지적 탐구는 그것 자체로 목적이며, 동시에 도덕적·영적 형성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과정임을 역설하였다. 뉴먼의 이러한 사유는 현대 고등교육의 기능주의적·도구주의적 경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오늘날 고등교육은 산업화와 시장 중심 논리에 따라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인간 존재의 총체성과 의미를 조망하는 통합적 교육을 약화시키며, 고등교육의

* 손종현, 「뉴먼(Newman)의 ‘대학의 이념’과 교양교육의 지향」, 『교육철학』, 77(2010), 117쪽.

사명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가톨릭 대학은 진리탐구의 자율성과 신앙적 형성 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란 학문과 신앙, 이성과 감성,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전인적 교육(holistic education)을 의미하며, 가톨릭 대학은 이러한 전인교육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더불어 윤리적 판단력, 영적 감수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단지 교육과정뿐 아니라 캠퍼스 문화, 공동체 생활, 영성 교육, 사회봉사 등의 총체적 경험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가톨릭 대학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교육을 통해 지성과 영성의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과 계시, 학문과 신앙의 ‘상호 조명’이라는 가톨릭 교육 전통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에서 말하듯이, “신앙은 이성을 필요로 하고, 이성은 신앙을 통해 완성된다”는 원리를 토대로 교육적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신앙과 이성은 인간의 정신이 진리를 관조하기 위해 상승하는 두 개의 날개와 같다”(『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프롤로그)

* Fides et Ratio, Faith and Reason: An Eternal Embrace for the Soul Thirsting for Truth, p.1; Catholicus.eu

결국, 가톨릭 대학은 뉴먼의 사상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문적 엄격성과 영적 성실성을 함께 추구하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간 이성의 훈련을 넘어서 도덕적 통찰과 신앙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적·영적 진리추구’를 향한 전인적 교육의 길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가톨릭 교육공동체로서 역할 확대

뉴먼의 『대학의 이념』이 제시하는 가톨릭 대학은 단순히 지식의 탐구와 신앙의 보존이 아니라, 신앙과 이성의 통합을 통해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닌 가톨릭 교육 공동체(educational community)로서의 역할을 지닌다. 뉴먼이 주장한 ‘자유교육’은 봉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독특한 정신을 부여하였는데, 대학의 목적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인간 정신의 양성과 진리탐구 여정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참여”로 보았다.* 이는 가톨릭 대학이 단지 가톨릭적 배경을 가진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신앙과 학문,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해야 함을 함의한다.

현재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은 ‘교수-학생’, ‘교수-지역’, ‘지역-학생’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생-지역-

* J. H. Newman, *ibid.*, pp.100~102.

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가톨릭 교육의 사명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이처럼, 가톨릭 대학은 내부적으로는 신학과 인문 교양 중심의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 봉사활동, 리더십 함양 등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가톨릭대학교의 피터 K. 킬패트릭 총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덕과 인격 형성은 신앙과 이성 사이의 대화, 그리고 국가와 주교의 가톨릭 대학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교육과정과 연구에 반영되어왔으며, 캠퍼스 사목과 같은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심화와 공동체 해체 현상 속에서, 가톨릭 대학은 교육공동체로서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실천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1990)』에서 가톨릭 대학을 “사회 발전에 봉사하며, 윤리적·종교적 원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사회 발전에 봉사한다. 사회가 안고 있는 인

* 최준규(2016), 앞의 글, 223~225쪽.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atholic University Wins \$1 Million Grant to Cultivate Virtue Campus-wide, AUG 01, 2024. <https://www.catholic.edu/all-stories/catholic-university-wins-1-million-grant-cultivate-virtue-campus-wide>(검색일: 2025년 6월 7일)

간 생명, 정의, 분배, 평화, 사회 발전 등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신학적 윤리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ECE 32항)

가톨릭 대학교가 특별히 수행해야 할 임무는 현대의 지배적 가치들과 규범들을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검토·평가하고, 또 인간 삶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윤리적·종교적 원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대학은 참다운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ECE 33항)

특히 오늘날 가톨릭 대학은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적 신앙 공동체(public community of faith)’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생태·정의·평화와 같은 공동선의 증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톨릭 대학은 교회의 사명과 세속 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신앙의 일치’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먼의 『대학의 이념』은 가톨릭 대학이 ‘공동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진리와 정의, 그리고 신앙과 삶이 통합되는 ‘살아있는 교육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대학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인간성과 초월성, 공동체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총체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교육 방향이다.

V. 결론 및 제언

■ 현대 사회 대학을 ‘멀티버시티(Multiversity)’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다양한 목표와 기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도전적이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학의 본질과 목적을 지키면서도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톨릭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대학의 본질적 가르침을 현대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 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뉴먼은 대학을 단순한 지식 축적의 장소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지성적 탐구와 도덕적·영적 성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이러한 대학관은 현대 고등교육이 직면한 기능주의적 전락, 분절적 지식체계, 경쟁 중심 수월성 담론 속에서 가톨릭 대학이 회복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톨릭 대학이 뉴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 속에서 교육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대학은 기술 중심의 실용지식과 전문화된 학문 분화 속에서 인간의 총체적 이해와 의미 탐구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톨릭 대학은 지식의 통합성과 인간 실존에

* 안병직, 《문화산책》 안병직 서울대 교수의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이념’, 《세계일보》, 2013년 10월 25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31025004680>(검색일: 2024년 12월 5일)

대한 교육적 성찰을 회복해야 하며, 신앙과 이성, 학문과 윤리, 인문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문 간 통합을 유도하는 융합적 교양교육과 인문·신학적 성찰을 포함하는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총체적 인간 이해를 가능케 하며, 전문성과 인격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둘째, 가톨릭 대학은 지식탐구, 인성 형성, 사회봉사의 삼중적 목적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전문성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한 학제 간 연계 교육, 윤리·영성 교육, 공동체 중심의 실천 교육을 포함한다. 대학의 성과지표가 계량적 수치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 성과에 있어서 인성, 영성, 공동체 기여도 등 질적 가치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수월성과 정체성의 긴장 속에서 가톨릭 대학은 수월성의 개념을 신앙과 공동선, 인간 존엄이라는 가톨릭 교육 가치 안에서 재정의하고, 정체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월성은 곧 윤리성과 공동선을 위한 실천적 역량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가톨릭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도 교육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가톨릭 대학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과의 학문 교류 및 공동 연구, 학생 교환 등을 확대하여 가톨릭 고

등교육의 보편성과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

결국, 뉴먼이 제시한 대학의 이념은 가톨릭 대학이 단지 제도적 가톨릭성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성 회복과 진리 탐구의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교육공동체로서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가톨릭 대학이 직면한 정체성 위기와 교육적 과제에 대한 통합적 해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가톨릭 대학의 본질과 목적, 공동체적 사명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 권정현·김해숙,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자율전공학부 대학생활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30(4)(2024), 303~324쪽.
- ◆ 권현수,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5(2)(2022), 61~83쪽.
- ◆ 김성태, 「옥스퍼드 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9(2002), 한국교회사연구소.
- ◆ 뉴먼, 밀, 이진우, 박일우 역주, 『자유교육의 전개 영국편』, 서울: 리버럴아츠, 2023.
- ◆ 백승수, 「교양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의 재개념화」, 『교양교육연구』, 13(1)(2019), 141~161쪽.
- ◆ 손종현, 「뉴먼(Newman)의 ‘대학의 이념’과 교양교육의 지향」, 『교육철학』, 77(2010), 91~124쪽.
- ◆ 원형준, 「대학 이념 기반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46(2024), 249~301쪽.
- ◆ 지정민·손종현, 「존 헨리 뉴만의 「대학의 이념」의 재해석」, 『도덕교육연구』, 23(2)(2011), 141~163쪽.
- ◆ 정철민, 「대학의 이념으로서 자유교육의 성격: 오우크쇼트의 언어(language)와 문헌(literature)의 구분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5(2)(2013), 75~92쪽.
- ◆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41~66쪽.

- ◆ 최준규,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방안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51(2016), 215~234쪽.
- ◆ 최준규·윤만근·구본만·김경이·김남희·김선필·이희경·전제아, 『가톨릭 교육학개론』, 지식문화원, 2024.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연구」, 2019.
-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가톨릭학교 교육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 ◆ A. J. Cernera, *The Catholic Character of Catholic Universities*, Mission Integration & Ministry Publications, 9(2009), pp.439-453. https://digitalcommons.sacredheart.edu/mission_pub/9/(검색일: 2025년 1월 24일)
- ◆ A. Dulles, 「존 헨리 뉴먼의 생애와 사상」, 윤성희 옮김, 2010, 서울: 성바오로.
- ◆ B. Readings, 『폐허의 대학: 새로운 대학의 탄생은 가능한가』, 윤지관·김영희 역, 2015, 서울: (주)도서출판 책과 함께.
- ◆ Fides et Ratio, Faith and Reason: An Eternal Embrace for the Soul Thirsting for Truth, p.1. Catholicus.eu European Catholics in english.
- ◆ I. Ordorika, & M. Lloyd, "Global university rankings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3(2015), pp.15~24.
- ◆ John, Paul II., 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Ex corde ecclesiae], 최영철 역(1990),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전자북],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 J. Brennan, R. King, & Y. Lebeau,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Transformation of Societies,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Synthesis*

Report, 2004, pp.39~40. <https://oro.open.ac.uk/6555/>(검색일: 2024년 12월 5일)

- ◆ J. H. Newman & Schleiermacher, F., 『대학의 이념』, 이진우 역주, 2000, 계명대학교출판부.
- ◆ John, Paul II., 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Ex corde ecclesiae], 최영철 역(1990),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전자북],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 J. H.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Edited by Turner, F. M., 1996, Yale University.
- ◆ K. Mohrman, W. Ma, & D. Baker, The Research University in Transition: The Emerging Global Model, *Higher Education Policy*, 21(1) (2008), pp.5~27.
- ◆ M. Alasdair, The Very Idea of a University: Aristotle, Newman, and U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7(4)(2009), pp.347~362.
- ◆ M. Marchetto, Religious Education and John Henry Newman's Idea of a University, *Itali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7(3)(2015), pp.187~214.
- ◆ S. Sawasdikosol, "Driving Universities' Collaboration Toward the New Era of Sustainable Social Responsibility."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Conference", Penang, Malaysia, 2009, pp.1~17.
- ◆ P. Tonks., The Liberal Arts and the Christian Mission: John Henry Newman's Idea of a University and its Legacy, 『대학과 선교』, 32(2016), pp.35~73.
- ◆ 송종복, <상아탑>, 《경남매일》, 2014년 10월 29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671>(검색일: 2025년 6월 8일)
- ◆ 안병직, <[문화산책] 안병직 서울대 교수의 존헨리 뉴먼의 '대학이념'>, 《세계일보》, 2013년 10월 25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31>

025004680(검색일: 2024년 12월 5일)

- ◆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website: www.shanghairanking.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 website: cwur.org(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 R. Anderson, "The 'Idea of a University' today." *History & Policy*, 2010년 3월 1일, <https://www.historyandpolicy.org/policy-papers/papers/the-idea-of-a-university-today>(검색일: 2024년 12월 5일)
- ◆ THE(Times Higher Education):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 ◆ T. Hoopes, "Why Cardinal John Henry Newman Thinks You Should Give College a Try", *Benedictine College, Kansas, Media & Culture*, 2024년 3월 5일(검색일: 2024년 11월 5일)
-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atholic University Wins \$1 Million Grant to Cultivate Virtue Campus-wide, AUG 01, 2024,<https://www.catholic.edu/all-stories/catholic-university-wins-1-million-grant-cultivate-virtue-campus-wide>(검색일: 2025년, 6월 7일)
- ◆ QS Top Universities: www.topuniversities.com(검색일: 2024년 11월 1일)

222



Newman's *The Idea of a University* and Exploring the Direction of Catholic University Educ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Implications

Han Jin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atholic Education · PhD Student)

Choi Jungu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atholic Education · Professor)

■ This study aimed to reflect on John Henry Newman's *The Idea of a University* from a contemporary educational perspective and explore the direction Catholic universities should take in education. Newman viewed the university's role as integrating the pursuit of truth and personal growth in providing critical reflection on modern higher education centered on functionalism and excellence. This study proposed

that Catholic universities should strive to become educational communities that harmoniously realize the threefold purpose of knowledge, character, and service, with the objective of integrating faith and reason, ethics, and scholarship. In doing so, it called for the strengthening of liberal arts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 harmonization of identity and competitiveness, and the realization of the common good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Newman's university vision could serve a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Catholic universities in responding to contemporary challenges and restoring the essence of education and its communal mission.

◇◇◇◇◇◇◇◇◇◇◇◇

Keywords: John Henry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Catholic higher education, faith and reason, educational community, liberal arts education, common good

- ◎ 투고 접수 2025. 06. 12.
- ◎ 심사 완료 2025. 08. 18.
- ◎ 게재 결정 2025. 08. 18.